

# 와는 적자라고요!!

유우카 잔뜩 일러스트북

@bechu

R15  
ONLY

안녕하세요 bechu입니다.

여러분들의 꾸준한 후원과 사랑으로 제가 책을 제작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들께도 좋은 기억을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한 사본입니다.

현장에서 구매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원본과 달리 약간의 편집을 거쳤으며  
아쉽게도 모든 페이지가 아닌 일부가 제외된 사본임을 밝힙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책의 무단 전재, 다운로드를 통한 인쇄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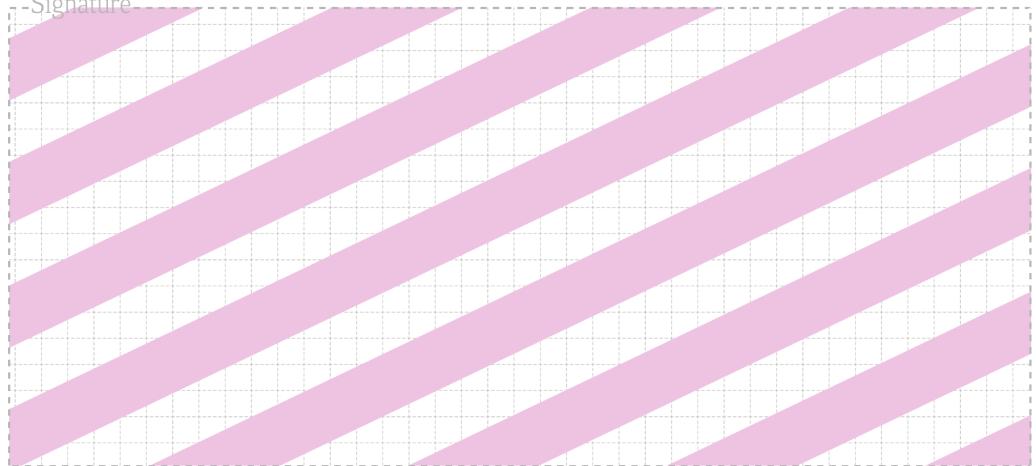
유우카 잔뜩 일러스트북

# 오늘도 적자라고요!?

blue archive unofficial fanbook

@bechu

Signature



후원자 전용으로 편집한 사본입니다. 무단 전재, 다운로드를 통한 인쇄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후술자 전용으로 표기된 내용입니다.  
본문은 제작, 배포 등을 위한 보호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후원자 전용으로 편집한 사본입니다. 무단 전재, 다운로드를 통한 인쇄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후원자 전용으로 편집한 사본입니다. 무단 전재, 다운로드를 통한 인쇄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여기엔 사정이 있으니  
자세히 물지는 말아주세요

…어서오세요  
선생님

주문은  
무엇으로  
하실 건가요?

음… 그럼  
가볍게  
오므라이스?



...설마했는데  
요리도 유우카  
네 담당이구나  
3시간이나 걸렸네

제 계산은  
완벽했다구요!



후원자 전용으로 편집한 사본입니다. 무단 전재, 다운로드를 통한 인쇄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후원자 전용으로 편집한 사본입니다. 무단 전재, 다운로드를 통한 인쇄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선생님!

어쩌죠?  
갑자기 몸이  
작아져서…

이런 건  
계산범주에  
없던 일  
이에요…!

제 말 듣고  
계신가요!?



어른답게 맛있는 걸 잔뜩 사줬다

후원자 전용으로 편집한 일본입니다. 무단 전재, 다운로드를 통한 인쇄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후원자 전용으로 편집한 사본입니다.  
무단 전재, 다운로드를 통한 인쇄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후원자 전용으로 편집한 사본입니다. 무단 전재, 다운로드를 통한 인쇄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옷이 너무 달라 붙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유우카



후원자 전용으로 편집한 사본입니다. 무단 전재, 다운로드를 통한 인쇄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파란 장미의 꽃말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모집 대박나시길...

세계 최초(?) 홀로그램 면사포입니다  
웨딩드레스에는 역시 면사포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공식 설정상 헤일로는 물리적으로 닿을 수 없다고 하지만...  
동인 설정이니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후원자 전용으로 편집한 사본입니다. 무단 전재, 다운로드를 통한 인쇄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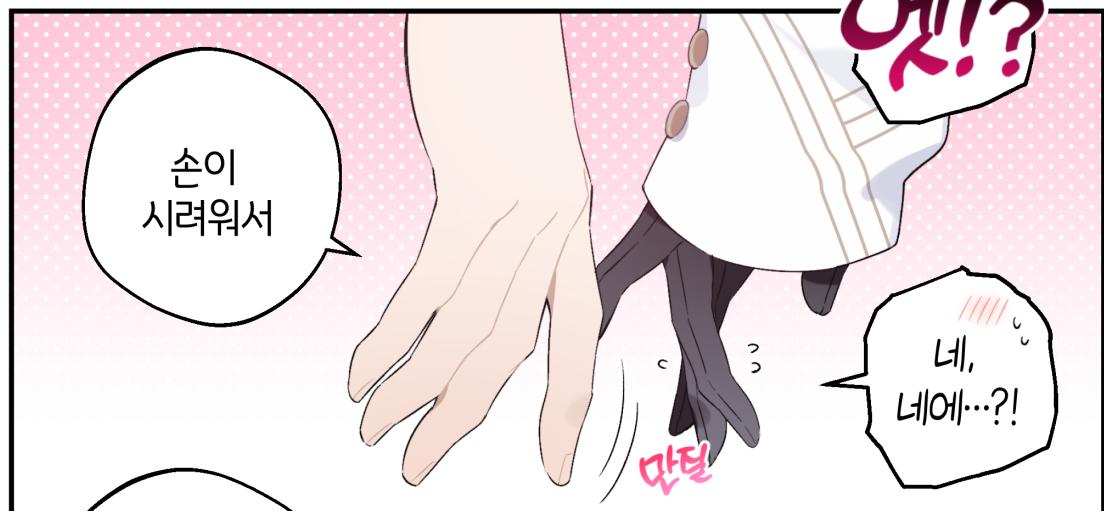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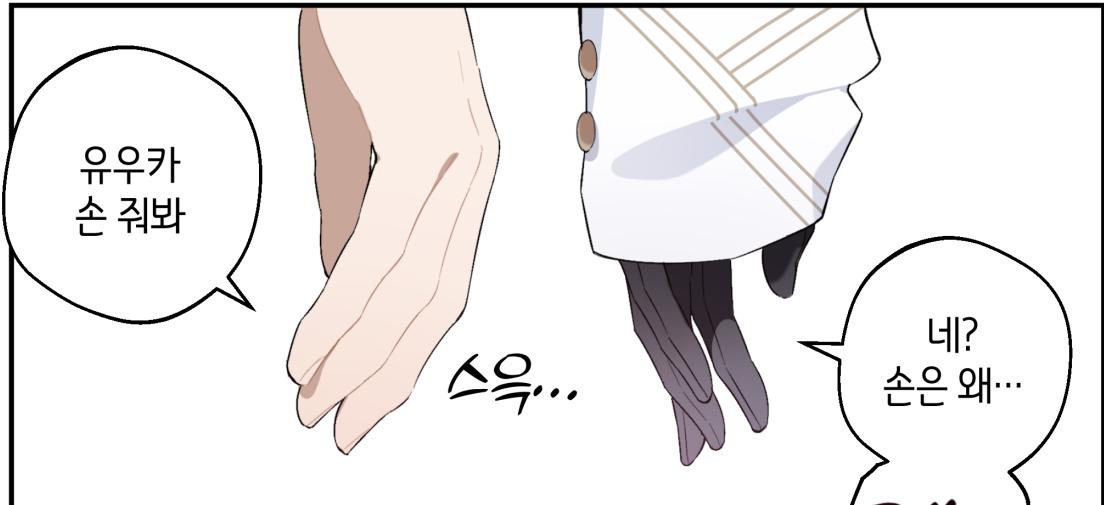
선생님도  
정말이지....

저 혼자서  
할 수 있다니까요



후원자 전용으로 편집한 사본입니다. 무단 전재, 다운로드를 통한 인쇄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 선생님은 어리광 피우고 싶어



후원자 전용으로 편집한 사본입니다.  
무단 전재, 다운로드를 통한 인쇄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후원자 전용으로 편집한 사본입니다.

거리감  
없어...!

이제와서  
춥다고  
말씀하시면.....

멋대로  
벗어주신 이 코트  
돌려드릴까요?

아니,  
코트는 됐어  
손이면 돼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정말.....

후우,  
선생님은  
여전하시네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아주 잠깐만  
이에요

수줍...

사무실까지 잡고 왔다

안녕하세요 bechu입니다.

제가 블루 아카이브 팬아트를 그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블아는 오픈 초기에 찍먹만 했는데 말이에요.

초기 구상은 축전처럼 '적자 메꾸기 화보집' 같은 느낌으로 구상했는데,  
점점 저의 추악한 욕망이 담겨서 '유우카와 연애부터 결혼까지' 따위가  
된 것 같아요.

그려놓았던 게 없어서 인쇄 마감일까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을 많이 담지 못한 아쉬움이 많은 책이네요.

게다가 입덕 초기에 그렸던 작품들은 유우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네요.

이래저래 적고 싶은 게 많은데 기운이 없네요.

다른 블루아카 작품으로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본은 행사 당일에만 교환 가능합니다.



# 오늘도 적자라고요!?

blue archive unofficial fanbook